



한덕수 국무총리, 재외공관장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관의 주도적 역할 논의

-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4.23(화) 「2024 재외공관장회의」에 참석한 공관장들을 초청하여 ‘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관의 역할’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.
 - 이번 간담회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고, 날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.
- 한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이 혼재된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,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민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재외공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 - 또한,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, 현지 네트워크를 더욱 충실히 다지는 한편,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.

- 한 총리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에서 최상대 주오이시디대사가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지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.
- 이어 최영삼 주베트남대사는 우리의 인도-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 확대 및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.
- 또한,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는 역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튀르키예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실리적이고 선제적인 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.
- 오늘 오찬 간담회는 재외공관장들이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복합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,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붙임 : 개회사 전문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김진환 (044-200-2136)
		담당자	서기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